

소아신장병, 궁금합니다!



사단법인 한국학교보건협회지정 소아 신장센터 홈페이지 중 공개 상담실 코너에서 발췌한 글들입니다.

· 소아신장센터 홈페이지
www.urinescreening.com



조병수

한국학교보건협회 회장
경희의대부속병원 소아과장
bscho@dreamwiz.com

1

5살때 부터 신증후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이泮엔을 복용하고 있는데 어제 병원에서 의사선생님이 약복용하고 부작용이 있는지 조작검사를 해 보자고 하였습니다. 너무 걱정스러운 나머지 어디에 제일 먼저 부작용이 오는지 얘기를 못드렸습니다. 약을 복용하면서 제일 조심해야할 사항과 다른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지, 음식과 보조식품 먹을 시 제일 신장에 좋지 못한 성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최근 알로에 보조식품을 먹고 있는데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 검증되지않은 식품 즉 소아신장전문의가 추천하지 않는 식품이나 약제는 드시지 마십시오. 사이泮엔은 신장병에 면역억제제로 쓰이는 약제이지만 신장에 독성이 있으므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혈중농도를 체크하면서 습니다. 그러나 부작용여부를 보기위해 신장조직검사를 하는것은 센터마다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제가 10월달에 소변검사를 학교에서 받았거든요. 근데, 이상이 있었는지 걸렸었어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다시 했는데 병원에 가보라고 종이를 줘서 병원갔었는데 한번하고 그 담에 재검사 받으라고해서 오늘 갔었는데요. 지난번 검사때가 +3이었던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지난 번보다 좀 늘었다고 종합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그려는데요. 혈액검사도 받아보고 웬만하면 신장조직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거예요? 조직검사 어떻게 하는건지 모르겠거든요?? 미취하고 하는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나요? 근데 많이 안 좋은건가요? 신장이?? 어떻게해야되요??

▶ 잠혈(소변에 피가나오는것)이나 단백뇨가 소변에 나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가지 경우 모두 3개월이상 지속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만성신장염이 의심되어서 대개 신장조직검사를 하는데 방법은 등뒤에서 초음파를 보면서 바늘로 신장조직을 조금 떼어내는 것입니다. 시술장의 수기에 따라 간단히 끝날 수도 있고, 잘못되면 신장을 적출해야 하는 경우도 드물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3

제 친구가 조직검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너 무 두려워 하는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드립 니다. 조직검사를 어떻게 하는지는 상담실에 서 조금 알수 있었는데요. 조직검사를 할때 통증이 어느정도인지... 검사후 하루종일 누워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너무 다급하고 절실한데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그렇고...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친구에게 조금이 나마 안심을 주고 싶어요.

조직검사는 등에서 초음파를 보면서 특수 바늘로 조직을 조금떼는 검시인데 잘못하면 출혈이 심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숙련된 소아신장전문의는 별 문제되지 않습니다. 저희센터에서도 1500명 이상의 소아에서 신장조직검사를 시행하였지만 문제가 되는 합병증이 생겼던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조직검사후 떼어낸 부위는 꿰메는 것이 아니고 하루정도 쉬면 저절로 아물기 때문에 시술후 하루정도는 안정이 필요합니다.

4

저는 올해 15살이되는 학생입니다. 6년전에 신장염으로 대학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신장염이라고 단 기입원을 했습니다. 단기입원을 할때 얼굴이 붓고해서 약은 전혀 맞지는 않고 음식 조절만 했습니다. 그러니 부은얼굴이 빠지면서 체중도 47kg에서 43kg으로 빠졌습니다. 퇴원을 하고 몇일 동안 매운거 짠거 가리다가 몇일 지나자 매운종류를 먹기 시작했는데 아무이상이 없다가 다시 재발하더군요. 확실이 얼굴이 붓기 시작한것은 언제부터 인지는 잘모르겠습니다. 음식조절이 집에서는 안되더군요. 지금은 아침마다 얼굴이 다시 붓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신장염은 확실하게 진단을 받고, 환자는 현재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장병은 대부분 서서히 진행되어 자각증상이 거의 없으면 전신피로, 무력감, 두통, 빈혈 등의 증상이 생기면 이미 신부전으로 이행된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기진단치료가 중요하며, 그렇기 때문에 운영자가 국회에 청원하여 초중고생 모두가 의무적으로 소변검사를 받게 된것입니다. 그러나

5

저의 아이가 콜레스테롤과 혈소판수치가 높읍니다. 거기에대한 음식종류를 가르켜주세요.

콜레스테롤과 혈소판이 증가될 수 있는 원인 질환을 먼저 찾아서 그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대부분 원인 질환을 치료하면 그 것에 의해서 증가되는 콜레스테롤이나 혈소판은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약물로써 콜레스테롤이나 혈소판 수치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려면

1. 포화 지방의 섭취를 줄입니다
2. 콜레스테롤의 섭취를 줄입니다
3. 정상체중을 유지하고 적절한 운동을 합니다
4. 섬유소의 섭취를 늘립니다
5. 평소에 음식의 내용물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6. 각자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알아둡니다
7. 인스턴트식품의 섭취와 외식을 줄입니다

식품 중의 포화 지방산의 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화 지방이 적은 식품〉

과일류, 채소류, 생선류, 껍질 벗긴 닭고기
저지방 우유, 콩류, 국수, 밥, 계란 흰자

〈포화지방이 많은 식품〉

베이컨, 소세지, 육류의 기름이 많은 부위
치즈, 버터, 라이드(돼지기름), 닭껍질, 초코렛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

계란노른자, 내장류, 닭껍질, 기름기 많은 육류, 오징어, 굴, 새우, 버터, 마요네즈

귀하의 자녀가 신증후군 환자는 아닌가요??

그렇다면 단백뇨의 정도에 따라 위의 수치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치의와 이런 문제에 대해 상의하십시오....

소변검사후 이상이 발견되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런한 검사를 시행하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아울튼 신장센터가 있는곳에서 정밀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십시오.